

高麗·朝鮮朝 國王冕冠制

柳 喜 卿

머리말

冕旒冠은 소위 大禮의 祭冠으로서 中國에서는 유구한 歷史를 가지고 있었으니, 許氏說文에서는 『黃帝始用布帛作冕』이라 하여 이미 五千年前黃帝가 布帛으로 冕을 만들어 썼다 하였고, 『路史』에는 『黃帝有態氏始制冕服 以別貴賤之等』이라 하여 또한 黃帝가 冕服을 제도화하고 이로써 貴賤의 等級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史記』五帝本紀에는 『帝堯黃收純衣』라 하고 그注에 『索隱曰收冕名 其色黃』이라 하여 帝堯時代에도 收 즉 黃色 冕冠이 있었고 『禮記』王制에는 『有虞氏 皇而祭 深衣而養老』라 하여 陳注에 『皇冠冕之名 深衣 白布衣也』라 하였던 바 舜帝時代의 그 祭冠인 皇도 곧 冕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禮記』王制에는 『夏后氏 收而祭 燕衣而養老』, 『殷人 冔而祭 縮衣而養老』, 『周人 冕而祭 玄衣而養老』라 하고 陳注에 收나 冔는 冠冕이라 하였으니, 中國 最古의 王朝인 夏代에는 收, 다음 殷代에는 冔 그리고 周代에는 冕을 祭冠으로 삼았으며 모두 周制라 할 冕冠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冕旒冠이 사용된 것은 春秋戰國時代라고 보거나와, 이 冕旒冠을 가지고 周代 이전 黃帝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漢代의 學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를 典禮의 象徴으로 삼는 가운데 先王의 遺制라 하여 그 權威를 높이고자 한 데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後漢書』明帝本紀에서 보면, 永平二年(五九年) 正月 光武帝를 明堂에 제사하였을 때 明帝와 公卿 諸候가 비로소 冠冕衣裳을 服用하였다 하거나와, 아마도 이것이 中國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冕服制度가 확정된 시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冕旒冠에 대한 觀念的인 作用은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각도를 달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中華의 藩屏으로 자처하는 가운데, 中國에 대한 事大와 王權의 標信으로써 이를 崇仰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高麗時代를 겪으면서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冕服을 둘러싸고 줄기차게 이루어졌던 外交辭令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 移植된 中國의 樣式의 典型을 冕服의 冕冠과 袞服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一、高麗期 國王의 冕冠

中國 冕旒冠에 대한 認識은 그 發生年代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三國時代부터 있었다 하겠으나 이것을 우리 나라 王이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高麗時代에 내려와서이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高麗史』輿服志에 나타난 바로는 제一〇대 靖宗 九年(一〇四三年) 契丹主가 中國制를 모방하였을 冠服(冕服)을 賜與함으로써 있었고, 이후 契丹主 및 遼主로부터는 數次 九旒冕九章服의 賜與가 있었던 가운데, 제一七대 仁宗 元年(一一二三年) 宋 宣和奉使의 一行中 提轄官으로 高麗를 다녀간 徐兢의 見聞記「高麗圖經」冠服條에 『祭則冕主』라 하여, 우리 國王 冕服의 存在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仁宗 一八年 詔定 禘禮服章에는 王服에 『冕九旒七章』이라 하여 비로소 그것이 制度化되었음을 보거나와, 다음代 毅宗朝 詳定古今禮에서는 『九旒冕九章服』이라 하여 이를 詳定해 놓고 있는 것을 본다 이에 있어 그 冕旒冠制度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每旒에는 一二玉을 달았고 玉은 赤·白·蒼色을 섞어서 썼으며 纁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版은 廣이 八寸이고 長이 一尺六寸으로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졌으며, 앞 높이는 八寸五分 뒤 높이는 九寸五分이었는데 앞은 낮고 뒤는 높았고, 길은 검고 속은 붉은 색이었으며, 앞·뒤에 邃延을 九旒씩 달았다. 紘·統은 青色으로 하였고 瑱·纁도 青色으로 하였으며, 犀簪導를 꿸았는데 길이는 一尺二寸이었다.』

위의 설명만 가지고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다시 설명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冕版 즉 平天板의 넓이는 八寸, 길이는 一尺六寸이었으며,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네모졌고, 길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으로 썼다. 그리고 그 밑 머리 위에 쓰는 殼 즉 冠身은 앞 높이가 八寸五分, 뒤 높이가 九寸五分으로서 뒤가 앞보다 一寸정도 높았고, 이것도 길은 검은 색, 속은 붉은 색으로 하였다.

冕旒는 앞·뒤에 각 九旒씩이었으며, 每旒에는 一二玉을 달되 玉은 赤·白·蒼三色을 꿸었고, 纁(冕旒줄)도 역시 赤·白·蒼三色으로 짜아 짠 것이었다. 여기에 青色의 紘(組纓)을 턱 밑에 맺어 느렸고, 青色의 瑱과 纁을 귀 걸까지 드리웠으며, 青色의 統을 또한 느려뜨렸다. 그리고 犀簪導를 꿸았는데, 그 길이는 一尺二寸이었다.

이 冕旒冠制度는 中國 後漢代 이후의 冕旒冠과는 약간의 相異點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으니,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宋史』 輿服志에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宋 冕旒冠制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宋史』 輿服志에서 時代的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宋 高宗 紹興四年(一一三四年) 개정된 皇帝 冕服의 冕旒冠으로서, 그 年代는 高麗로서는 仁宗 一二年에 해당하며, 毅宗期 冠服制度를 상정하기 約二〇年前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冕版(延)은 나무에 羅를 입혔는데 길은 玄色이고 안은 朱色이었으며 길이는 一尺六寸, (넓이는 八寸이었고), 앞이 一寸二分 낮았다. 四旁은

金覆으로써 卷武 위에 緣을 하였고, 五色絲로 커서(纁) 만든 旒에는 五色玉을 꿸었는데 前後 各一二旒에 二八八顆를 사용하였다. 玉笄가 있었고, 充耳는 黃綿을 사용하였으며(難纁充耳), 紘은 朱組를 가지고 하였는데 한쪽을 笄 왼쪽에서 밑으로 느려뜨리고 구부러 笄 오른쪽에 얹고 는 그 나머지를 느려뜨렸다.』

宋에서는 冕服의 화려함을 다투어 崇尚하여 傳統的인 것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았으므로 古制로 도라가고자 하는 努力과 더불어 빈번히 改定이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는 그것이 宋初의 것과는 크게 달라져 『周禮』 弁師나 『禮記』 玉藻 등 古典에 실려있는 바로 그대로를 踏襲해 보고자 하는 흔적이 역연하다.

크게는 冕版의 넓이 一尺二寸, 길이가 二尺四寸이던 것을 宋 仁宗 景祐二年(一〇三五年) 이미 古制에 가까운 것으로서의 넓이 八寸, 길이가 一尺六寸으로 改正한 바 있거니와, 高麗에서도 이를 그대로 쫓고 있는 것이다.

여기 五色絲로 커서 만든 旒에는 五色玉을 꿸었는데 前後 各一二旒에 二八八顆를 사용하였다 함은, 그 동안 各冕旒에는 白玉珠 또는 眞珠一個만을 꿸었던 것을 『周禮』 弁師에서의 설명대로 一旒에 五采玉 一二顆를 꿸게 되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 冕旒줄도 또한 五采로써 커서 꿸은 것으로서, 이후 이것은 明에 내려가서도 그대로 定制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高麗王 冕旒冠 旒珠는 一旒에 赤·白·蒼 三采玉 一二顆라 하였으니 『周禮』 弁師 鄭玄注에는 諸侯의 九旒冕冠 一旒의 玉數는 朱·白·蒼의 三采玉 九顆라 하였는 바, 이에 따라다고 하면 그것은 一二顆 아닌 九顆로 하였어야 制度에 맞는 것이었다고 하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宋 皇帝의 冕旒冠 冕版의 靑表朱裏는 古制인 玄表朱裏로 도라갔으나 宋 皇太子의 冕旒冠은 이때에 아무런 改定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대로 靑表朱裏였다고 할진데, 같은 九旒冕冠인 이에 따라야

하였을 우리 國王의 것은 玄表朱裏로서 충실히 古制를 따르고 있기도 하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高麗의 「詳定古今禮」가 무조건 宋制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古今의 禮를 가려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詳定코자 고심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國王의 것의 紘·統·纁은 일률적으로 青色을 사용하였는데, 「唐書」車服志나 「宋史」輿服志 등에는 九旒冕冠에 있어 紘은 대개 朱絲組纓이었고 纁은 靑纁充耳이었으며 統과 瑱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高麗에서 당시 玄統 아닌 靑統이긴 하지만 이것을 中國 古制 그대로 傳闔立本筆 帝王圖에 보이는 바긴 끈을 圓으로 만들어 平天板 表面 中心部에서 좌우로 걸치고 양이개와 앞가슴을 지나 下腹部까지 걸쳐 느러뜨리고 있었으며, 또한 靑纁充耳 외에 같은 充耳 또는 塞耳로서의 靑玉瑱을 귀걸까지 느러 뜨리고 있었는지 疑問이 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는 宋制에 있어서도 이 改定冕服 이전의 것에는 天河帶가 있어 그것이 統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나 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紘이나 瑱이나 그저 記錄으로만 남겨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問題가 되는 것은 旒의 길이이다. 「禮記」玉藻에서 보면 그 길이가 어깨와 가지런하다 하였으며, 「續漢書」輿服志에 와서는 앞길이 四寸, 뒷길이 三寸으로서 旒의 길이로써 前後倂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의 冕旒冠은 旒의 길이를 앞·뒤 동일하게 하고 殼(冠身)의 높이를 앞 八寸五分, 뒤 九寸五分으로 하여 앞이 뒤보다一寸정도 낮게 함으로써 前後倂仰의 형태를 나타냈다고 보는 바, 여기 旒의 길이는 朝鮮朝初期 편찬된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九寸으로 되어 있으니, 이때의 것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진대 그것은 「禮記」玉藻

에서 표현한대로 어깨까지 내려오게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宋制에 있어서는 紹興四年制에 앞이 一寸二分 낮다고만 되어 있어 殼의 높이가 明示되어 있지 않은데, 이보다 앞서 政和三年(一一一三年)制에는 높이 앞 八寸五分, 뒤 九寸五分으로 되어 있어 紹興制 또한 이에 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高麗의 것과도 같은 것이므로 위에서 의 설명은 宋制에도 해당된다.

여기에서 附言해 둘 것은 冕版 및 殼에 있어서의 修飾이다. 이때에 와서 宋制의 그 처창하던 冕版 覆蓋는 없어졌다고 보거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冕版 둘레나 殼에는 修飾이 전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니, 여기 冕版 四旁을 金覆으로써 緣을 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며, 高麗 國王의 冕旒冠에 있어서는 冕版과 殼을 그저 「玄表朱裏」로만 표현하고 있으나 朝鮮 明으로부터의 賜與冕服의 冕冠에는 金飾이 있었으므로, 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떠한 修飾이 加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를 전후하여 女眞族의 金主로부터 수차 王 冕服이 보내져 왔으나 그것도 宋制와는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이었다고 보는 가운데, 이 毅宗期 詳定 王 冕服은 그대로 襲用되어 내려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는 제二三대 高宗朝에 이르러 中國에 새로 등장한 蒙古族인 元의 侵略을 받고 長期間의 抗戰 끝에 마침내 이에 굴복하여 이후 그들에 대한 服屬을 강요 당했는데, 元의 정책이 그 冠服制度에서는 中國 古來의 服飾을 習用하는데 서슴치 않았던 관계로, 우리 나라에서도 冠服制度에서 만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王 冕服도 從前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지 약 九〇년에 지난 제三二대 恭愍王朝에 이르러 元이 衰微해 지자 恭愍王은 王 자신이 元의 駙馬였고 그 血脈 속에는 元 王室의 피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元의 羈絆에서 벗어나 復舊의인 中興政治를 試圖하는 가운데, 冕服에 있어서는 九旒冕九章服 아닌 中國皇帝와 同格인 十二旒冕十二章服을 착용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어떠한 規模의 것이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恭愍王은 同王 一八年 五月에 新興의 漢族이 세운 明에 대하여 그 太祖의 登極을 치하하고 謝恩表를 올리는 동시에 祭服의 賜與를 청한 바 있다. 이는 漢族에 대한 事大와 慕華觀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기에 앞서 過去 契丹兵이나 蒙古兵에게 유린 당한 쓰라린 경험에 있는 高麗로써 어쩌면 그 後患을 미연에 방지코져 재빨리 王權의 承認을 얻어 두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明에서는 그 이듬해(明 洪武 三年…一三七〇年) 王의 冕服·遊冠袍와 群臣의 陪祭冠服의 賜與가 있었는 바, 그것은 中國에 비하여 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한 것으로서, 따라서 그 王服은 明의 親王禮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에 사여된 冕服의 冕冠을 보면 「高麗史」 輿服志에는 다만 『冕靑珠九旒』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는데, 明에서도 冠服의 定制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은 洪武 二六年에 가서 있었던 것이다.

二、朝鮮朝 國王의 冕冠

高麗朝 恭愍王 때 明 太祖로부터 사여된 冕服의 冕旒冠은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太祖·定宗代까지 채용되었다고 보는 바, 이는 제三代 太宗 二年(明 建文四年…一四〇二年)에 가서야 明으로부터는 再次 冕服의 賜與가 있는 데서이다.

이때 明 惠宗으로부터 사여된 冕服은 物目이 밝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는데, 그 이듬해인 同王 三年(明 永樂元年) 一〇月에 明 成祖로부터 사여된 冕服은 그 物目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이에서 冕旒冠에 관한 기록을 「太宗實錄」에서 옮겨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香皂緞紗의 九旒平天冠 一項, 그 안에

玄色 素紵絲 거죽에 大紅 素紵絲 안을 가진 平天冠板 一片

玉桁 一根

五色 珊瑚玉 旒珠와 膽珠 一六六顆、그 안에

紅 三六顆、白 三六顆、蒼 三六顆、黃 三六顆、黑 一八顆、

靑白膽珠 四顆

金事件 一副와 함께 八〇簪件、그 안에

金簪 一枝、金蔡花 大小 六箇、金池 大小 二箇、金釘과 顆蝗搭

釘 五八箇、金條 一三條

大紅 熟絲線 一副

大紅 素線羅의 旒珠袋 二箇』

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國朝五禮儀」에 나타난 王 冕服의 冕冠을 토대로 하고, 明 永樂三年 更定된 親王冠服에서의 冕冠을 참고로 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理由인즉 「國朝五禮儀」에 실려있는 것은 이때 사여된 冕冠의 制度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었으며, 明 永樂三年 更定冕服은 이때부터 불과 二年後의 것이므로 이와 同制였다고 보는 데서이다.

먼저 「國朝五禮儀」에서의 冕冠의 설명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冕服의 넓이는 八寸이고 길이는 一尺六寸으로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났으며, 길은 玄色 縉으로 덮고 안은 纁色 縉으로 썼다. 그리고(殼의) 앞 높이는 八寸五分이고 뒤 높이는 九寸五分으로서 金飾을 하였다 九旒로서 앞·뒤 一八旒이며, 每旒에는 九玉이 있어 朱·白·蒼·黃·黑的 차례로 五采玉을 꿰었는데, 旒의 길이는 九寸이었다. 金簪을 꿰었다.

冕의 앞에는 玄色 紵이 붙어 있었고, 이에 玉瑱을 느러뜨려 充耳로써 삼았다. 그리고 紫組 두 줄을 가지고 양쪽에 부착시키고 이를 턱 밑에서 매고는 그 나머지는 느러뜨렸다. 또 朱組 한 줄을 筓(金簪) 왼쪽에 얹고 턱 밑을 돌려 오른쪽으로 위로 올려서 筓에 부착시켜 곱쳐매고 그 나머지는 느러뜨리어 修飾을 삼았다.』

다음 明 永樂三年 更定 親王冠服에서 冕冠의 설명을 풀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冕冠』은 겉은 玄色이고 안은 朱色이었으며,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졌다. 앞·뒤에는 각 九旒가 있어 五采纁로 이루어진 旒마다에는 赤·白·靑·黃·黑의 차례로 五采玉 九箇를 꿰었다. 玉衡이 있어 (冕版과 殼을 연결하여 유지시키고), 金簪을 꿰었다. 玄色の 紉으로 靑玉을 사용한 靑纁充耳와 白玉瑱을 느러뜨렸으며, 朱紘纁을 매었다.』

이에 여기에서 당시에 사여된 冕冠의 物目を 놓고, 上記「國朝五禮儀」에서의 우리 國王의 冕冠과 明 永樂三年 更定親王 冕冠과를 합쳐서, 그 윤곽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賜與物目에는 『香皂皺紗의 九旒平天冠 一頂』이라 하였고, 그 안에 『玄色 素紉絲 거죽에 大紅 素紉絲 안을 가진 平天冠板 一片』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그 色에 있어 「國朝五禮儀」에서의 玄覆纁裏나 「永樂禮制」에서의 玄表朱裏나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갑종유에 相異가 있다 하겠으나 이것 역시 별로 問題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平天冠板 즉 冕版은 앞이 둥글고 뒤가 네모나며, 넓이 八寸이고 길이 一尺六寸이었다.

殼 즉 冠身の 앞 높이는 八寸五分이고 뒤 높이는 九寸五分이며, 이 殼을 冕版과 연결 유지시켜주는 것은 賜與物目에 있는 『玉桁 一根』이었고, 이것은 「永樂禮制」에서의 玉衡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旒의 길이를 앞·뒤 九寸으로 동일하게 하고, 殼의 뒤 높이를一寸 높게 함으로써 前後後仰의 冕冠의 特徵을 나타내게 하였다.

또 이 殼에는 金飾을 하였으나 하였으니, 賜與物目 속에 『金事件 一副와 함께 八〇簪件』이라 하고, 그 안에 『金簪 一枝, 金葵花 大小 六箇, 金池 大小 二箇, 金釘과 螞蝗搭釘 五八箇, 金條 一三條』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金簪 一枝 이외의 것들은 殼을 金飾하는데 소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金簪은 金으로 만든 笄로서 곧 金簪導라고도 하였는데, 高麗 毅宗朝 詳定古今禮王 冕冠에서는 犀簪導이었으며, 恭愍王 당시 明 太祖로부터

사여받은 冕冠의 것은 金簪導이었다.

冕版 앞·뒤 九旒에 旒마다에는 五采玉 九箇를 꿰어 달았는데, 「國朝五禮儀」에서는 『先朱·次白·次蒼·次黃·次黑』이라 하였으며, 「永樂禮制」에서는 「赤·白·靑·黃·黑 相次」라 하였고, 「賜與物目」에는 『五色 珊瑚玉 旒珠와 膽珠 一六六顆』라 하고, 그 안에 『紅三六顆, 白三六顆, 蒼三六顆, 黃三六顆, 黑一八顆, 靑白膽珠 四顆』라 하였으니, 이것도 色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五采玉 九箇의 纁 순서는 그 數로 보아 『紅·白·蒼·黃·黑·紅·白·蒼·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五采玉 每旒 九顆에 九旒는 高麗 毅宗朝 詳定古今禮에서는 赤·白·蒼 三采玉 每旒 一二顆에 九旒이었으며, 「周禮」 弁師 鄭玄注에서는 諸候 九旒冕冠 一旒에 朱·白·蒼 三采玉 九顆이었다 함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의 『靑白膽珠 四顆』는 纁과 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國朝五禮儀」에서의 冕冠制에는 『冕의 앞에는 玄色 紉이 붙어 있었고 玉瑱을 느러뜨려 充耳로써 삼았다.』 하였고, 「永樂禮制」에는 『玄色 紉으로 靑玉을 사용한 靑纁充耳와 白玉瑱을 느러뜨렸다.』 하였는데, 靑色 膽珠 二箇는 纁으로써 사용하여 靑纁充耳가 되었고 白色 膽珠 二箇는 瑱으로써 사용하여 白玉瑱이 되었다 하겠으니, 「國朝五禮 序例」 吉禮 祭服圖說 그림에서 보면 각 끈 끝에는 玉珠 二箇가 달려 있어, 纁과 瑱이 「永樂禮制」에서의 설명과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紉과 纁과 瑱과의 관계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원래 紉은 긴 끈을 圓으로 만들어 平天板 表面 中心部에서 좌우로 걸치고 양 어깨와 앞가슴을 지나 下腹部까지 길게 느러뜨린 형태의 것이었으며, 纁과 瑱은 모두 充耳 또는 塞耳라고도 하여 冕 양옆에 느러뜨려 귀가 있는 데까지 내려온 것으로서, 그 끝에는 纁은 손뼉치를 달았다가 後代에 玉珠로써 대신하였고 瑱은 처음부터 玉 또는 珠를 달아 兩者는 별개의 장식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는 紉은 辭典에서의 『冕兩旁條』라는 간단한 설명

과 같이冕 양옆에서 느러뜨린條를 일컫고 있는 것이며, 『瑱統』이라 하여서는瑱을 다는 것을 일컫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이統 끝에充耳의 위치에서纁(靑膽珠)과瑱(白膽珠)을 함께 달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紵에 있어서는賜與物目 속의『大紅 熟絲線條 一副』가 그것이라 하겠으며, 『永樂禮制』에서는『朱紵纁』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國朝五禮儀』에서는『紫組 두 줄을 가지고 양쪽에 부착시키고 이를 턱 밑에서 매고는 그 나머지느느러뜨렸으며, 朱組 한 줄을笄 왼쪽에 얹고 턱 밑을 돌려 오른쪽으로 위로 올려서笄에 부착시켜 곱쳐매고 그 나머지는느러뜨려 修飾으로 삼았다.』하여, 그 형태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國朝五禮序例』吉禮祭服圖說 그림에서 보면 마치『周禮』弁師 『玉笄朱紵』이란 글귀에 鄭玄이注하여『朱紵以朱組爲紵也 紵一條屬兩端於武』라 한 것과 같이 朱組로써 武의 양끝에 부착시켜서는 턱 밑에 매지않고 다만 가슴 앞에 드리운 형태의紵의 역할과 그후에 있어서는組纁으로써의 턱 밑에서 맺게 된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이에서는 턱 밑에 맺는紵는紫組 二줄로 하여 턱 밑 좌우 양쪽에서 맺고 그 나머지는느러뜨렸으며, 턱 밑에 맺지않은 것은 朱組 一줄로 하여 턱 밑에서는紫組와 가지런히 하여 오른쪽으로 돌려 올려서笄에서 곱쳐매고 그 나머지를느러뜨려 修飾을 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여기에서만 볼 뿐이며, 『三才圖會』御用冠服冕의 그림에서나 『世宗實錄』五禮 吉禮序例 冠冕圖에서는 二줄의組纁을 턱 밑에서 나비매듭을 하고 나머지 끈을느러뜨리고 있다.

이후 明으로부터 代代로 사여된冕服을 歷代王實錄에서 보면, 冕冠은 대개 『九旒인 香皂皺紗平天冠 一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여기 明 永樂三年 更定 親王冕服은 이로부터 一五二年 이 지난 嘉靖八年(一五二九年) 衰冕 更定時에도 개정된 바 없었으니,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제一六대 仁祖朝 漢族에 의한 明이 衰亡하고 滿洲族에 의한 淸이 들어서자 丙子胡亂(一六三六年)에서 그들에게 겪은 恥辱도 잊지 못할 恨이

있거니와 이들을 胡族이라 하여 敬遠하고 冠服의 請賜도 마다하였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오히려 明으로부터 사여받은 冕服을 본따 國內에서 지어입게 되었다.

그러나 附屬品 중에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은 부득이 淸 燕京 저자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制度가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제二一대 英祖朝에 尙方에 있는 明朝에서 領賜된 바 이의 옛 冕服圖의 圖式에 따라 制度를 정해 놓게 하였다.

『尙方定例』에서 冕冠에 관한 것을 찾아보면 總目에 大殿法服이 있어 平天冠이라 하고, 이를 표시하기를 『白玉梁·黹纁珠·簪·旒五色珠』라 하여, 幡紅鼎絀 三幅의 襦袂에 싸서 倭朱紅添을 한 집에 安置하여 衰服과 함께 尙衣院 冕服閣에 奉安한다 하였다.

여기의 白玉梁이 무엇을 指稱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그것은 玉衡 즉 玉桁이라 생각되며, 黹纁珠·簪·旒五色珠 등에 관해서는 別例에 汚損된 것이 있어 格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改造한다 하고 物目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니, 오히려 이에서 좀 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戶曹에서 調達한 것으로, ○大竹 ○梧桐板 ○蓋覆 冒緞 ○內拱大紅廣的 ○粧飾 및 簪으로 十品銀 ○鍍黃金 ○水銀 ○取色白蠟 ○細玉珠 ○山猪毛 ○黃蜜 ○松脂 ○休紙 ○眞油 ○鹽 ○裏袂 金錢紙가 있으며, 이밖에 所要된 것으로는, ○白玉梁 一部(前에 排置된 것을 移用) ○白玉纁珠 四箇(前에 排置된 것을 移用), 靑는 것으로 紫的絲 五分 ○冕旒 五色珠 各二六箇, 靑는 것으로 五色絲 三錢 ○毛羅 一尺四寸 ○舉月伊로 銀絲 一尺 ○纓子 童多繒로 大紅眞絲 三錢 ○漆 各 五울름(夕) ○魚膠 四兩 ○墨 一片 ○炭 二斗 ○粧飾 取色에 焰焔·碌礮·五味子(필요할 때 나누어 직접 사드려 사용) ○內裏 小甲袂 三件에 幡紅鼎絀 五尺 ○縫作 大紅絲 六分 ○싸개인 幡紅鼎絀 三幅의 襦袂 一件 ○分습하는 草綠絨絲 二錢이 있다.

이에서 볼 때, 冕版의 바탕으로는 梧桐板을 사용하였으며, 靸은 竹으

로 만들었고, 길 싸개는(검은) 冒緞으로 하고 안 싸개는 大紅 冒緞으로 하였으며, 殼의 粧飾 및 簪으로는 十品銀을 사용하였으니 鍍金하였다.

그리고 冕旒는 五色絲로 旒를 삼아 五色珠 각 二六箇라 하였는데, 부족한 數는 前者의 것에서 移用하였다고 보는 가운데 이것 역시 紅·白·蒼·黃 각 三六顆와 黑 一八顆를 꿰었다고 할 것이다.

또 纒에는 白玉珠 四箇를 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前者와 견주어 볼때 紫色絲는 紃이 되고, 한쪽에 白玉珠 二箇는 纒·玉瑱 각 一箇라 할진대 靑玉 纒이 白玉 纒으로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며, 紃 즉 纓子로는 大紅眞絲로 짠 童多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前記「世宗實錄」所載 冠冕圖 및 「國朝五禮序例」所載 祭服圖에서의 冕冠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朝鮮朝 末葉에 내려와서 제 二六대 高宗은 在位 三四年(一八九七年)에 大韓帝國 皇帝位에 오르자 冕服에 있어 中國 皇帝와 同格인 十二旒冕 十章服을 착용하였다. 光武元년에 재정된 그 冕旒冠制를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冕制는 圓匡의 鳥紗帽로서, 위에는 覆板(平天板)이 있어 길이 二尺 四寸이고 넓이 二尺二寸이었으며, 길은 玄色이고 안은 朱色이었고, 앞은 동글며 뒤는 네모졌으며, 앞·뒤에는 각 黃·赤·靑·白·黑·紅·綠의 七采玉珠를 꿰 一二旒가 있었다.

그리고 冕版과 殼을 연결 유지시키는 玉桁이 있었고, 玉簪導를 꿰었으며, 朱纓(紃)을 맺고, 玉珠 二箇를 綴한 靑纒充耳를 느러뜨렸다.』 이것은 明 嘉靖八年에 改定된 皇帝 冕冠制와 같은 것이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참고삼아 永樂三年制 明 皇帝 冕冠을 푸리해 보고 아울러 이와 비교 대조해 보면 거기에는 몇가지 相異點이 있다.

『冕冠은 十二旒冠으로서 皂紗로써 만들었다. 위 覆板을 緗이라고 하였는데, 桐板을 바탕으로 하여 綺로써 입혔다. 길은 玄色이고 안은 朱色이었으며, 앞은 동글고 뒤는 네모졌고, 넓이는 一尺二寸에 길이 二尺 四寸이었는데, 앞·뒤에는 각 二旒가 있어 每旒는 五采로 짰고, 그

一二就(旒)에는 赤·白·蒼·黃·黑의 차례로 五采玉珠 二二箇를 꿰었다.

玉衡으로써 冕版과 冠(殼)을 연결 유지하였고, 玉簪을 꿰었는데, 이는 곧(紃)을 꿰어 그 끈과 冠의 下邊인 武를 纓(紃)이 있는 곳에서 합쳐 매었으며, 冠은 모두 金飾하였다.

纒 左右에는 黃玉을 사용하여 靑纒充耳를 느러뜨렸으며, 纒을 맺는 것은 玄紃으로써 하였고, 白玉瑱으로써 이었으며, 朱紃를 매었다.』

그러고 보면 永樂禮制에 있어서는 冕版의 넓이 一尺二寸이고 길이 二尺四寸이며, 冕旒는 五采로 짠 것이고 이에는 赤·白·蒼·黃·黑의 五采玉珠 一二箇를 꿰었고, 黃玉을 가지고 纒으로 삼은 동시에 白玉瑱을 그 밑에 이어 느러뜨렸는데, 嘉靖禮制에 와서는 冕旒의 넓이 二尺二寸에 길이 二尺四寸으로서 넓이가 一尺이 더 크며, 冕旒를 七采로 짜고 이에 黃·赤·靑·白·黑·紅·綠의 七采玉珠 一二箇를 꿰고 있어 紅·綠의 二采玉珠가 더해졌고, 靑玉을 纒으로 삼고 瑱은 省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의 우리 國王 十二旒冕冠은 다음 代 純宗皇帝의 御眞에서 도 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바이나, 隆熙四年(一九〇年)에 國運이 다하고 말았으니 그 着用年數는 一五年에 불과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의 遺物마저 찾아볼 수 없는 實情이다.

맺음말

以上으로써 高麗·朝鮮朝 國王 冕服의 冕冠制를 알아 보았다.

冕服은 古代 中國에서 생겨나 典型的인 漢民族의 官服이 되었으며, 이것이 大禮 冕服으로 완성한 것은 中國에서도 後漢 때부터 이거니와,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高麗時代에 들어와서이었다. 이러한 冕服에 있어 여기에서는 冕冠만을 考察해 보았는 바, 紙面 관계로 詳述하지 못하였음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로써 없애지고 잊혀진 冕旒冠을 再現시켜 볼 機會가 생겼을 때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梨花女子大學校教授)